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③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시위 보다 펜의 힘이 컸다

비록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전재성은 일그린 우리 사회를 목도한다. 그는 민중학원 가담자에 대한 회장이며 민중불교회 사인으로 감방생활을 했던 터라 수사관들이 항상 관찰하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시위가 벌어질 기미만 보이던 전재성은 사전 구금당했다. 허약한 체질에 반복되는 구금이 이뤄지자 그는 현장운동보다 집필을 통한 운동을 시작한다. 민중불교운동의 이념적 근거를 찾아내고자 관련 서적들을 파고들었다.

1976년 최연은 전재성에 이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에 피선됐다. 최연은 중앙대 출신으로 전재성 회장 때 총무부장을 역임했다. 또 최연은 연구조사국(국장 이현주)을 도와 민중불교운동의 근거를 찾기 위해 여러 번 모임을 주선한다. 이 때 전재성도 모임에 참여했고, 마침내 1976년 여름 수련회에서 '민중불교'를 주제로 발표하기로 했다. 장소는 전북 전주 부근의 송광사였다. 대불련 지도교수 중 한 사람이었던 동국대 인도철학과 원외교수는 전재성

의 글을 보고 극찬한다. 둘은 전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이야기를 나누느라 비행기를 놓쳤다. 결국 그들은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전주 송광사 소양캠프장까지 왔다. 전재성은 '민중불교론 서(序)'를 발표했다. 이어서 전보삼, 김유철, 배준상, 최주홍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때부터 그는 민주화를 위한 시위보다 집필을 통한 계몽운동으로 방향을 수정한다. 당시 전주 부근의 송광사에서 발표했던 <민중불교론 서(序)>를 토대로 좀 더 보완해 불교 언론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불교권 어디에서도 전재성을 글을 게재해 주는 언론사가 없었다.

"황석영씨한테 그 때 제가 사실은 그 때 처음 쓴 글이죠. 그제 처음 쓴 글인데 그래서 그 <민중불교론> 안에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 사회, 대 사회적 문제, 그 다음에 또 불교의 그 당시에 위치, 뭐 또한 사회적인 모순 이런 것들 집약시켜가지고 그 때 글을 쓴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실어줄 때가 불



대불련 본부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PJ호텔

교계에 없어가지고 그 때 황석영 씨를 제가 알게 되서 또 자주 황석영씨 집에 놀러 갔는데..."

그런데 <민중불교론> 원고가 황석영에게 전해진 이후 1년이 지나도 게재되지 않았다. 전재성은 원고를 돌려달라고 했다. 마침 <대화>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송건호(한겨레신문 창간) 선생이 1977년 10월호인 폐간호에 게재했다. 당시 지학순의 글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긴급조치 9호 위반에 해당하자, <대화> 잡지는 폐간하게 된다. 이 때 전재성의 <민중불교

론>이 지학순의 글과 동시에 잡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반향이 좀 컸던 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때 또 지학순 주교가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 그 당시에 긴급조치 9호 서습이 퍼런 긴급조치구호 상황인데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 그런 글을 실었으니깐 당국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가지고 저두 도대담으로 넘어간 거죠 그 때 같이 잡혀 들어간... '민중불교론'이란 거를 실어가지고 두 개가 아주 큰 자막으로 잡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나 혼자 한 일주일 만에 폐간이 됐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운동권 쪽에 불교 쪽에 동태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이런데서 그 좀 양식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제 글을 보고 그랬던 거 같아요."

전재성은 시위보다 오히려 펜의 힘이 크다는 점을 알았다. 수많은 불교인들이 그의 <민중불교론>을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③ 불국사

불국사에서 통일신라의 불국토를 보다

신라불교초기부터 시작된 전불(前佛)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발전해 진신상주신앙(眞身常住信仰)이 됐다. 진신상주신앙은 과거세로부터의 인연을 실하기 보다 신라의 국토가 불국토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낙산시대성 관음 정취조신(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講信)' 조에는 의상 스님이 낙산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 낙산사를 세우게 된 인연을 말하고 있다.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에서는 태자 보천과 효명이 기도할 때 오대에서 각각 일단의 관음, 세지, 지장, 나한 문수 등이 몸을 나타냈다고 전한다.

'진신공양(眞身受供)'에는 효소왕(孝昭王) 때 방덕사(望德寺) 재회(齋會)에 석가모니불의 진신(釋迦眞身)이 나타났으며, '생의사 석미륵(生義寺 石彌勒)' 조에서는 미륵보살이 생의사에 나타났고, '어산불영(魚山佛影)' 조에서는 만어산(萬魚山)에 부처님의 영상이 나타났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기록으로



불국사

빈틈없이 쌓아올려 만든 석단에 청운교(靑雲橋)·백운교(白雲橋), 칠보교(七寶橋)·연화교(蓮花橋)라는 2쌍의 다리를 놓았다. 청운교·백운교는 자하문(紫霞門)을 거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로 올라 석가 다보탑과 대웅전을 만난다. 대웅전 앞에 있는 3층 석탑과 다보탑(多寶塔)은 서로 마주 서 있는 쌍탑형식으로 돼있는데 뒤편으로는 경론(經論)을 강설하는 무설전(無說殿)을 두고 이 영역을 회랑이 에워싸고 있다. 연화교와 칠보교를 올라 안양문(安養門)을 지나면 극락전에 이르게 된다. 그 안에는 금동아미타불좌상을 모셔져 있다. 무설전 뒤에는 관음전이 있고, 그 서편에는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을 봉안한 비로전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세계라는 뜻이다.

대웅전에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현 시대에 나타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나타난다. '견보탑품'에는 다보 부처님이 보탑 속에서 자리의 반을 비켜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청하는 모습이 있다. 이런 내용은 동아시아 불교전래 시기 석가다보이불명좌상으로 묘사됐다. 불국사 대웅전은 탑이라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재현했다. '견보탑품'의 '부처님 앞에 7보로 된 탑이 있으니 높이가 5백 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2백 50유순인데, 땅에서 솟아올라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갖가지 보물로 장식했는데, 난간이 5천이요, 감실(龕室)이 천만이며, 무수한 당기, 번기로 꾸미었고, 보배로 된 영락을 드리웠다. 보배로 된 풍경 만역을 그 위에 달았다'는 묘사가 불국사 대웅전 마당에 나타난 것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불국사는 불국토 신앙의 절정 김대성이 창건, 해공왕 때 완성 신라인 꿈꾸던 불국토를 실현

불 때, 신라인들은 신라의 땅을 불국토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불국토 신앙의 절정은 바로 경주 불국사(佛國寺)이다.

<삼국유사>의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 조에는 경덕왕 10년(751) 당시 재상이던 김대성이 전세(前世)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현세(現世)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창건했다고 기록한다. 하지만 김대성은 이 공사를 완공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고, 이후 국가에 의해 완성됐다. 불국사는 해공왕 10년(774)에 30여 년 만에 완성됐다.

불국사는 신라인이 꿈꾸던 불국토(佛國土)를 3갈래로 구현했다.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비로자나불의 연화장 세계가 모두 녹아있다. 불국사의 경내는 석단(石壇)에 의해 단상(壇上)의 불국토와 단하(壇下)의 속계(俗界)로 양분된다. 크고 작은 돌을

존재임을 강조한다.

두 번째 용은 용신을 의미한다. 불경에 나오는 용은 중국(동양) 전설 속에 등장하는 용과 전체적인 이미지가 매우 흡사하지만 전설 속에서 용은 발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연을 신격화 했던 중국(동양)의 전설 속에서는 이무기가 천운을 만나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된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양인이 생각하는 용은 물속에 살면서 바람과 비를 다스리는 수호신으로서 불경에 나오는 용신으로 자리를 잡았다.

물속에 살면서 물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불경과 동양의 용은 서양의 용과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인이 생각하는 용은 동양인이 생각하는 용에 비하여 훨씬 비만한 몸매를 지녔으며 주로 입에서 불을 내뿜으며 산 속 깊은 곳에 사는 무섭고 사악한 존재로 그려진다.



조민기 작가·칼럼니스트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⑤

등장인물 소개 1

어느 종교나 대개 '수호신'을 가지고 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불교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여덟 수호신이 있는데 이를 팔부신장(八部神將)이라고 부른다. 이 중 천(天)·용(龍)을 으뜸으로 치기 때문에 천룡팔부(天龍八部) 또는 천룡팔부중이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본디 인도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존재들이었지만 불교에 흡수되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됐다.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듯 '인비인(人非人)' 천룡팔부의 정체

이 팔부신장은 각각의 신통력에 의해 인간의 모습을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아니다. 즉, 여덟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덟 '명'인 것은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여덟 가지 존재라고 보는 쪽이 더 정확하다. 인간과 같은 세계에 살기도 하지만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기도 한다. 이들의 존재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흥미진진하고 장대한 분량과 규모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대승 불교 경전에 주로 나타난다.

특히 <법화경>에서는 도입부부터 천룡

팔부를 소개하며, 나중에는 사갈라용왕의 딸 '용녀(龍女)'가 성불하는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지는데 이때 천룡팔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천룡팔부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중생(衆生: 감정이 있는 생명체)이다."

천룡팔부의 으뜸, 천(天)과 용(龍)

무협의 대가 김용은 또한 소설 <천룡팔부>에서 <법화경>을 출처로 여덟 존재를 소개하는데 이 소개에 따르면 가장 으뜸인 천(天)은 천신을 일컫는다. 이때 천신이란 바로 제석(帝釋)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천신이라 하여도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지도 않는다. 다만 인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장수할 뿐 아니라 큰 힘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복을 누린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다 하였으므로 제마무리 천신이라 하여도 수명이 다했을 때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천신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다섯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 징후를 살펴보



도리천

면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징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의복이 남루해지고 그 다음에는 머리 위에 꽃이 시들며 점차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나중에는 거드랑이에서 땀이 나며 끝내는 마음속의 기쁨이 사라진다고 한다. 천신의 죽음과 그 징후를 통해 불교는 죽을 앞에서 모두 평등함을 똑똑히 보여준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어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이른 아라한, 즉 부처야말로 신 '이' 섬기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지혜와 자비의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명석 카펫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中) (大)

■ 삼베 명석 카펫

- ◇ 크기 : 가로 280x 세로 180 x 두께 약 1cm
-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매트 (大) 가로 180 x 세로 70 x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매트 (中) 가로 75 x 세로 50 x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